

회생개시신청과 손해배상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회사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도 한순간에 추락한다. 원칙적으로 주주들은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할 뿐 떨어진 주식 가치 등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물론 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회사 임원의 배임 등이 개입되어 있다면 상법상 규정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떨어트린 임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도록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했음에도 회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전제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생개시신청 이후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사에 추궁할 수 없다면, 투자할 당시 회사와 개별적, 사전적으로 손해배상규정을 뒤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B회사에 투자하면서 '회사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로 인

한 주주의 손해를 보상하고 납입한 돈 전액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본다. "주주들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판결 등)라는 것.

특히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원칙적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을 무효라고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뒤 예외를 설정 해두었다는 데 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C회사가 어려운 자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격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관인 D에게 거액의 투자를 받아 당사자 간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C회사가 회사의 존속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D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후 C회사는 D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진행했고, D는 사전 동의 없이 회생절차를 개시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

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D는 공격 지위가 인정되는 신용보증기관으로 C회사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투자했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D에게 감시 기회를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무엇보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어서 다른 주주의 의견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도 아니며, 실질적으로 '약정된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이지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판결).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고 신주를 인수할 때 사전 동의를 규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한 약정의 경위와 목적,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주의 의견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해 고려한 뒤 예외적으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바른

비온 뒤 땅이 굳는다



기지수첩
김정산 (금융부)

주말에 등산을 다녀왔다. 기능성 티셔츠와 얇은 바람막이를 겹쳐서 입었다. 장갑과 목도리도 챙겼다. 막상 나가보니 바람이 제법 불었지만 완전한 봄이었다. 산에는 겨울철 떨어진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가 수북했다. 따로 챙긴 방한용품은 고사하고 입고 있던 바람막이도 벗어 가방에 넣었다. 산에서 내려오니 기침이 나왔다.

봄이 왔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한파에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특히 2금융권의 취약점이 두드러진다. 카드사를 살펴보면 연체율이 9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1년 새 0.42%포인트(p) 올라갔다.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카드사들이 위험에 대비해 쌓은 충당금은 1조1505억원이다. 그래도 신용카드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0.9% 줄어드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같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8년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를 제대로 맞았다. '직격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축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손충당금만 4조원에 육박한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특히 순이익, 연체율이 모두 악화했지만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저축은행의 현 상황은 예고된 미래일지도 모른다. 얼마전 한 저축은행에

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동창은 부동산 호황기 PF가 돈이 되자 저축은행권이 선부르게 뛰어들어 영랑도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등산 중 덥다고 외투를 벗었다가 기침감기에 걸린 나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때론 눈앞에 욕심을 버리더라도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금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192.07%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두 배나 웃돈다. 이어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BIS비율은 1.20%p 상승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보다 단단해져야 한다. /kimsan119@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5일 (음 2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37년생** 마른 눈에 물이 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49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원숭이따위의 거래는 잘 살펴서. **73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게 보인다. **85년생** 청소년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 38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50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오히려 주의를 준다. **62년생** 심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이다. **74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절 것이 없다. **86년생** 대화의 기운이 살아난다.
- 39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51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63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노력. **75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 **87년생** 집안 청소로 기운전환을.
- 40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와 타협이다. **52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컫는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64년생**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76년생** 튀는 것보다는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88년생**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주의.
- 41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53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65년생** 집안 제사는 함성하여 참여할 것. **7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9년생** 본격적인 부동산 운이 온다.
- 42년생** 미워하는 마음을 접어도 운은 바뀐다. **54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고 신경 쓰자. **66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78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90년생** 우주의 기운의 자석과도 같다.
- 4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55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6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91년생** 오늘따라 화사한 빛이 나며 이익이 넘친다.
- 44년생** 자손의 일로 자랑할 일이 생긴다. **56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68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마음껏 역량을 발휘. **80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살펴야 실수가 없다. **92년생** 어깨를 펴고 출근하도록.
- 45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라. **57년생** 복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된다. **6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81년생** 오후에 바쁜 일이 쏟아진다. **93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먼저 순서.
- 46년생** 잠깐 투자했는데 결실을 얻는 운 좋은 날. **58년생** 짐차하지 말고 신용으로 행동. **70년생** 사람마다 복이 발현되는 시기가 있다. **82년생** 막말은 부메랑 같으니 말조심하자. **94년생** 사실이 있음이니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 47년생** 복덕이 넘치는 날. **59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 **71년생** 맛있는 장맛은 집안의 동티도 물리친다. **83년생** 농사를 지을 때 거름의 효험은 가을에 결실로 나타난다. **95년생** 수학의 수처럼 역류의 수는 과학이요 철학.



김상회의四季 행복과 행운

우리는 행복을 꿈꾼다. 행복이라 하면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과 기쁨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행복이란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인간의 고뇌가 있다. 맛있고 귀한 산해진미도 몇 끼 이어지면 싫증 난다. 잠도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자면 머리가 아프다. 과유불급이란 말이다.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재력이 좋은 부자들이 마약에 탐닉하는 이유도 가질 걸 가져보니 무미건조해지기에 더 큰 자극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질려도 좋으니 돈 한 번 맘대로 써봤으면 하는 것이니 복권 당첨이나 주식 대박 같은 한탕주의 같은 행운을 꿈꾸는데 글썽하다. 이러한 일들은 횡재(橫財)에 속하는 일이라 이 역시 운수소관에 있어야 한다. 횡재의 속성이 또 다른 재앙의 원인을 함유하고 있기에 그 끝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 운으로 볼 때는 매우 조심스럽다. 행복의 기준과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어서 객관적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소욕지족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필자에게 상담을 오는 분 중 수입은 상급인데 맨날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박봉이어도 수입의 삼분의 일 정도는 저축하는 분들도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사주 구성에 겁재와 비견이 두드러지고 식상관이 강하면 버는 것 이상 재물이 나가고 남에게 돈을 뜯기거나 손재수를 볼 확률이 증가한다. 대운에서 겁재가 들어올 때도 그러하다. 신약이든 신강사주든 손재를 봄으로써 건강 이상을 때우기도 한다. 따라서 겁재운이 오거나 운이 12운성중 쇠국(衰局)기운으로 흘러갈 때는 불공 기도를 통한 보시나 기부금 등을 베풀게 되면 좋지 않은 액운을 보완한다고 해석한다. 돈으로 때우는 것이 가장 낫다는 논리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8	9	1	2	6	2
2	2	6	7	8	9	8	1
2	9	1	9	6	2	8	7
1	8	2	8	2	6	7	9
9	6	9	1	2	7	2	8
6	8	7	8	9	9	1	2
9	9	8	2	1	8	6	2
8	1	2	2	7	8	9	6
4	2	5	6	8	2	9	1

9	9	1	6	2	8	2	7	8
8	8	7	2	1	9	2	9	6
6	2	9	7	8	2	9	8	1
9	6	8	2	9	7	1	2	8
2	7	8	8	2	1	6	9	9
7	2	9	8	9	6	8	1	2
8	1	2	9	8	2	9	6	7
1	8	2	9	6	9	7	8	2
2	9	6	1	7	8	2	9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